

社說

해외 최초 5·18 기념일 제정의 상당한 의미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5·18 기념일을 지정해 최초 사례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는 매년 5월18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선언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참의원 6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5월 정신이 전 세계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5·18의 증거, 기록 및 귀중한 문화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광주를 민주화의 메카로 탐방시켜준 군사독재에 억눌려 있던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자유의 나라에 대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아이디어와 일치한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 가혹한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열정과 신념, 용기로 동지적 목숨을 걸었다"며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고 촛불혁명의 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광주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국

가 기념식에는 정치권과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1980년 5월을 추념하고 후대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5·18기념일 제정을 환영한다. 현지 축하 행사에서 "민주주의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얻게 한 교훈을 받은 에너지의 미래화로 승화시켰다"는 한인 출신 최석호 의원의 표현에 주목하게 된다. 5·18기념재단도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에 서 있는 미국에서 동방 먼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캘리포니아는 '마지막 수배자' 고 윤한봉 선장이 미국 망명 시절 민족학교를 세웠던 곳으로 5·18과 인연도 각별하다.

5·18 세계화를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자연스럽게 발표명령, 행불자 찾기 등 진상규명 또한 속도가 붙어 왔다. UN이 정한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예곡·평해행위를 서슴지 않은 일부 극우세력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5·18민주화운동이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로, 민주주의의 중대 이정표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

경로당 '자동제세동기' 국가 지원 사업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켜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 등에 의한 돌연사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구비가 필요한 이유다. 전국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의 편차가 있는 만큼 보편적 노인복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상의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선박, 공공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지원 강화로 권고돼 있다. 결국에 광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로당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비율은 전체의 1.6% 불과한 실정이다. 동구 116개소, 서구 235개소, 남구 246개소, 북구 373개소, 광산구 378개소를 합해 1천384개소 가운데 22곳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령대별 폭염 질환 환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2017년 기준)에 달했으며,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생존율이 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자치구는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설치시 1대 당 2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뿐 아니다. 5년에 한 번 20만원 정도를 들여 배터리를 바꾸고 2년 주기로 10만원 정도의 패드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교체해야 한다.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국가 사업으로 정부에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제세동기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구호장비다. 지구 온난화 여파로 폭염의 기세가 더해지는 양상인 만큼 초기에 응급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있도록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긴박한 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경로당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인 것이다.

누가 지역화폐를 죽이는가

수료가 없어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당장 올해 국비 지원이 줄면서 광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고, 부산과 대전은 충전 한도와 할인율을 줄여 발행하고 있다. 대구 시와 경상북도도 오는 10월쯤이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은 1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조 4천8백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이 지역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적인 경기 회복에는 상당히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2020년 13조 3216억 원이었던 전국 판매액이 이듬해인 2021년 23조 5871억 원까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세액이 증가한 데다 10% 할인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발행 즉시 완판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올해엔 6월 기준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절반이 넘는 14조 8259억 원이 판매됐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판매액이 늘어 하지만 올해 전국 지역화폐 예상 판매액은 20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약 80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1조 2552억 원에서 35% 이상 감소한 액수다.

지역소멸시대에 지역의 살길 중 하나인 지역화폐는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재정 부담은 다른 지자체에서 조정하더라도, 지역화폐 지원을 멈추서는 안된다. 지역화폐는 곧 시민들의 삶, 즉 씹는 이와 직결돼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

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광주상생카드 경우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석맞이 서민경제안정 등을 위해 발행·충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로 그해 7월 시작했다. 발행·충전 규모는 2019년 863억원, 2020년 8천641억원, 2021년 1조2천230억원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안팎 성장한 1조3천억원 가량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 국비 지원은 지난해 756억원보다 62.5%나 대폭 삭감된 283억6천만원에 그쳐 총 할인 재원도 653억원으로 지난해(1140억원)의 57.3%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광주상생카드 할인혜택은 재정 소진 시부터 중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광주상생카드는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으로 속도감있는 예산지원도 촉구한다. 4년 동안 10배 안팎으로 발행 규모가 커졌다고 선심성에 산 남비로 본다면 본질을 훼손한 시각이다. 경제 사령탑이 누구든, 지방행정 수장이 누구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는 사명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가만히 뒤도 여치고 소비할 것인데 지역화폐 쓴다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제로섬 게임' 같은 시각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간과한 가벼운 판단이다.

지역화폐는 더 진화 발전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계속 진화 중이다. 애초 청년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결재 수단 정도로 시작됐던 지역화폐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용처도 단순 대면 결제에서 최근엔 지역 시장과 연계한 온라인 물, 기부 등의 서비스로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화폐 지원을 지난해보다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걱정이다. 정부의 지원 축소를 근거는 재정 부담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정 투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전국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 22조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화폐는 주민과 상인의 경제 활동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소규모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효자다.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권을 현금으로 받고, 일부 금액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되돌려 주 상권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축제 기간 상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화폐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소멸시대에 지역의 살길 중 하나인 지역화폐는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재정 부담은 다른 지자체에서 조정하더라도, 지역화폐 지원을 멈추서는 안된다. 지역화폐는 곧 시민들의 삶, 즉 씹는 이와 직결돼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

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화폐로, 그 형태에 따라 지류형·카드형·모바일형 등으로 나뉜다.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업주들은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으며, 일명 '고향사랑 상품권'으로도 불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 재정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거래·생산·소비가 확대하는 '순순환 구조'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국비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크다.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자국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만큼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소비자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

기고



고민자

광주시소방안전본부장

여름철 전기화재와 법정(feat. 우영우)

히는 폭염에 20kg이 넘는 장비(공기호흡기·방화복·관창·헬멧·연기투시렌즈 등)를 착용하고 불을 향해 돌진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택한 죄로, 이도 저도 아니면서 불을 끄지 못하면 귀소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라도, 30도를 넘는 불벌터위에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쓰고 현장에 진입해 불을 꺼보지 않았다면 말을 마시라. 딱 죽을 맛이다. 화제가 잡히지 않아 투입 시간이 길어질라치면 지옥이 따로 없다.

그때도 "여름에는 화재가 별로 없지 않나?"고 하실지 모르겠다. 대답은 딱히 그렇지 않다. 전력 사용량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폭염이 오면 과부하로 인한 전기 화재가 줄을 잇는다. 요즘 집집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없는 집이 없으니, 지난 3년간 광주지역 전기화재는 675건으로, 2019년 총 242건 중 71건(29.3%), 2020년 총 214건 중 74건(34.5%), 2021년 총 219건 중 78

건(35.6%)이 여름철(6-8월)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4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부상 3명)와 9억1천895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변호사나 판사를 만나고 싶어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여름 화재를 경험해보고 싶어 자신의 집에 불이 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있을까? 그렇다면, 이 기회에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여름철 전기화재는 냉방기기의 수요 증가와 함께 전기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전기 차단기, 배전반, 계량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둘째,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실외기는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물품 등이 실외기를 막지 않도록 치워야 한다. 특히 담배꽂이가 실외기 안으로 들어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 4

천W의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기기를 꽂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전기시설에 먼지가 쌓이면 정전기와 전열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전반, 콘센트, 전기기구 접속부분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누전에 인한 전선 피복 손상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월 1회 이상 작동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물론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계절과는 상관없이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간다. 그렇지만 화재는 소송보다 무섭다. 소송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우영우 같은 변호사를 만나 승소를 할 수도 있지만, 화재는 돌이킬 수 없다.

우영우가 소방관이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왜 전기화재에 주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관심과 실천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데요."

늘어나는 수난사고, 조심 또 조심

올해도 어느덧 8월의 준순을 향하고 있다. 입추가 지나며 중부권에는 2차 장마가 시작되고 남부권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습하고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물놀이장, 바닷가,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물놀이는 무더운 날씨를 잡시나마 잊게 해준다. 하지만 즐거운 와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뉴스도 종종 나와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한다.

전남소방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1천175건, 2020년 1천603건, 2021년 1천648건으

로 3년 간 총 4천426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에서는 수난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시·군별로 수상구조대 운영에 나서고 있으나 해마다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숨지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며 야외에서 물놀이 시 구명조끼 등과 같은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혼자 수영하지 않아야 한다.

바닷가, 계곡 등은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급류가 발생하기 때



문에 수영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자만하지 않고 개인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여름 후 물놀이는 금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의 절제를 힘들게 한다.

이는 물놀이 중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잦은 위험요소를 발생시킬 것이며 나아가 실제 위급한 상황의 대처능력 또한 떨어지게 만들어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섬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안전장비를 활용한다. 최대한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소리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며 도구(튜브, 장대, 밧줄 등)를 활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한다.

즐거움 여름 피서가 되느냐,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에 달려있다. 모두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심을 갖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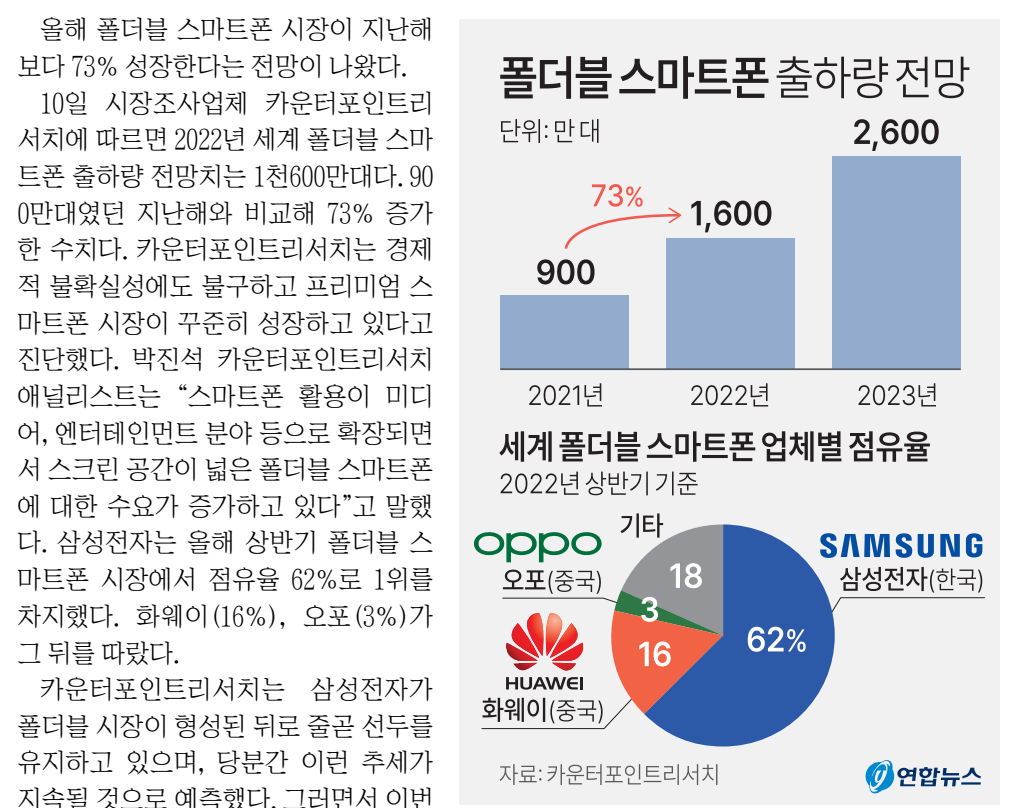
(김나영·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지난해보다 73% 증가 전망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